

무용 연구에서의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

김지영* · 박현정**

I. 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적용
II.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	IV. 논의 및 결론
III. 무용 연구에서의 비언어적 메타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인류가 진화하면서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였다. 그 중에서도 삶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와 군집 생활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시각적인 기호체계를 통한 인간의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이었다. 이에 간단명료한 기호체계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게 되었으며 일정한 원리에 따라 문자로 체계화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정립된 기호체계는 사회·문화의 상징성이 내포된 문자로서 세계를 탐구하고 인식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소통 언어가 되었다. 이와 같이 언어를 통해 인류의 삶이 고도로 성장하였고, 사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게 된 것은 분명 언어가 문자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분명 인류는 소통이 가능하였다. 비언어적 소통으로, 즉 신체의 움직임으로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인 몸짓과 손짓, 얼굴표정, 몸의 자세, 웃음 또는 하품과 같은 본능적인 동작으로 그 뜻을 추론할 수 있었고 이는 분명 메시지를

* 주저자, 연세대학교 강사

** 교신저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hj9405@hanmail.net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였다.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¹⁾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문법규칙에 관한 지식과 언어 사용에 의한 방법으로 유·무형의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요소가 공존하게 되었다.²⁾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언어나 글, 그림, 소리, 표정, 몸짓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메시지의 생산주체와 수용주체가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게 된 것으로,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언어 외에 표정, 몸동작 등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 전달이 가능하며 특히 얼굴표정은 개인의 성격, 관심, 반응에 대한 정보 및 감정의 상태를 전달해주는 다면적 메시지 체계로써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라 할 수 있다.³⁾ 이러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의미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 단어의 결합, 문장 등에 의해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로 구성되는 기호적인 소통 기능을 하는 구조적 언어(structured language)들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위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언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작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메시지에 대한 고민이나 판단을 위한 메타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meta communication)은 얼굴의 표정, 몸의 동작 등 신체동작으로 전달되는 가시적인 움직임에서부터 눈을 보거나 회피하는 등의 시각적 행위,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모든 신체접촉, 심지어 커뮤니케이션 중간에 발생하는 침묵의 시간, 헛수 등을 통해 그 상황과 의미를 해석하는 비언어적인 의사전달의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이론에 관심 대상이 되는 것 뿐 아니라 그 영역의 특수성과 체계성

1)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비연속적인 부분을 타부분과 연관시키는 추상성과 수용주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성, 그리고 규범적 판단을 포함하는 지식, 정보 등의 상호교환이다.

2) 방재현 (201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시각메시지 표현연구: 메시지의 신체적 표현에 의한 포스터 제작,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3.

3) 홍순구 (2006),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표정연출 유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6, p. 165.

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메타(meta), 즉 어떤 이론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이론(metatheory)으로부터 발생하였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나 문자에서 표현되는 의미 자체로 이해하지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표정, 몸짓 등의 움직임이나 그림, 소리 등의 표현 방법에 의해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메타적 이론을 근거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여 올바른 지식체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랜달 해리슨(Randall Harrison)⁴⁾에 따르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는 얼굴 표정과 제스처에서 패션과 신분의 상징까지, 춤과 드라마에서 음악과 무언극까지, 폭력의 레토닉에서 나체의 무용수의 레토닉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현상에 적용되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다. 특히, 무용이 신체 움직임을 기본으로 하는 예술로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탐색은 필수적이고 일차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용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철학적 문제들을 파악하여, 무용 연구에서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메타 이론의 관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이론들 중 동작학과 근접학의 개념원리와 요소로부터 무용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스키마(schema)의 타당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스키마 연구는 기존의 상황이나 정보를 통해 체계적이고 유용한 지식들을 생성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인지구조의 처리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무용연구에서의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메타이론의 논리의 적용을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적용 과정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방향을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무용 특수성과의 유사한 맥락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비교분석(continuous compara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무용연구의 스키마(schema)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론 적용의 범위와 관계를 구

4) Randall, H (1974), *Beyond Words: An Introduction to Non-verbal Communication*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 Hall), pp. 24-25.

체화하는 방법으로 문헌을 통하여 얻어진 핵심 자료의 분류와 범주화를 통해 인지적인 도식화(cognitive mapping)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이 연구의 초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집약되었다. 첫째,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관한 접근 대상과 범위, 방법과 기술 등에 대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둘째,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관하여 무용 동작과 움직임의 의미 해석, 안무 창작과 무용작품의 구성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과 연관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한 무용 연구의 새로운 학제적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무용 연구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시사하기 위함이다.

II.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

이 연구는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부터 무용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의 특수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체동작을 중심으로 맥락적인 상황과 의미 연구를 제안하는 동작학과 신체 움직임과 상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갖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중심으로 다루는 근접학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이러한 이론들이 갖는 기능으로 첫째, 동작학이 제안하는 언어학적 동작 유추 관점과 둘째, 동작학으로부터 다루어지는 비언어 기호학적 모형의 제시, 셋째, 근접학이 다루는 공간의 기능과 약호체계 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였다.

1. 언어학적 동작 유추

언어학을 모형으로 한 동작학은 신체언어(body language)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버드위스텔(Birdwhistell)의 저서인 『동작학과 맥락 *Kinesics and Context*』⁵⁾

5) Birdwhistell, R. (1970). *Kinesics and Contex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 183-184.

에 따르면, 말의 전달은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35%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65% 이상은 비언어적 형태로 전달되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언어에 의해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감각적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을 주지하고 이론에 기초가 되는 가정에 대하여 김홍규⁶⁾가 나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어떠한 신체 동작이든 잠재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행동은 유형화되어 있어, 약속된 신체 동작은 체계적 분석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생물학적 제한이 있는 신체 동작도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상호 작용 하에 움직임 사용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그룹들은 다른 제스처를 사용하기도 하고 타인의 가시적인 몸동작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체 동작 기능의 방법은 연구가 가능하다. 단지 방법과 접근방식에 의한 동작의 의미 발견 뿐 아니라 학습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학제적인 가치로 다루어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신체 동작의 사용은 특이성을 지니는 동시에,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체계의 한 구성이 된다는 것이다.

버드위스텔의 경우, 동작의 의미가 ‘그 동작을 누가, 언제, 어디서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호반응의 순서로 동작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점이 서로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의 전달 메시지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⁷⁾ 동작(kines)은 문화집단에 따라 정의가 상이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단시간 내에 발생하여 인지할 수 있는 신체움직임을 지칭한다. 이는 동작 또는 자세들의 범위를 하나로 보고 있다. 이러한 동작이 모여 동작소(kinemes)가 되는데, 이는 차별적인 전달기능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또한 언어학을 신체움직임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모델로 삼아서 동작학 모델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구성하는 기본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작소는 동작학의 가장 작은 분석 단위로서,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동작학적 소립자를 의미한다. 둘째, 이형동작소(allokines)는 어떤 특정 동작형태 안에 존재하는 동작소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 동작소의 변이들이다. 셋째, 동작형태(kinemorph)는 동작소 혹은 일련의 동작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동작소보다 큰 분석단위로서, 동작학적 연구를 위해 구분되는 특정 동작을

6) 김홍규 (2001). 『커뮤니케이션의 이론: 3개정판』(서울: 나남), pp. 112-113.

7) Birdwhistell, R.(1970), p. 80.

구성하는 일련의 동작소들이다. 넷째, 동작형태 구성(kinemorphic construction)은 동작형태들의 결합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이 신체적 활동과 언어들 간의 연계성은 동작구조가 언어의 구조와 유사하다는 암시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상황 속에서의 제스처어와 동작 체계는 언어 속 단어와 같은 형태와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음성처럼 기능하는 신체 행위가 단어와 같이 조합되어 문장처럼 구조화된 행위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동작 체계의 구성요소와 이들의 조합 형태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언어학적 동작 유추(linguistic-kinesic analogy)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이론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연구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공연 예술분야 및 무용 연구 분야에 적용한 사례는 부재하다. 무용이 신체의 움직임 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동 예술로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동작학 이론에 접근 하여 적용한다면 행위 자체가 보여주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더욱 흡입력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동작학 이론은 무용과 같은 행동 예술에 있어서 동작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 사이에 필연적이고 본질적이며 고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작품 분석에 비중을 두던 무용학 연구에 있어서 창작 안무와 전달 메시지의 관계성, 동작 의미성 등 메타적 이론의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연구법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이론의 적용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2. 비언어 기호학적 모형의 제시

에크만(Ekman)과 프리에슨(Friesen)⁸⁾은 얼굴과 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비언어적 기호에 대한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느낌과 분위기, 개성, 태도로부터 대인간의 관계에서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상태와 특성, 스타일, 기술 등에 관하여 본질과 형성과정에 관한 인상과 인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

8) Ekman, P., & Friesen, W. (1972). Hand Mov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22, p. 353.

적으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기원, 코딩 및 작용의 관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첫째, 행동의 원천인 기원(origin)은 비언어적 행위는 선천적이지만 문화, 집단 및 개인에 따라 변화한다. 둘째, 코딩은 행동에 대한 의미의 관계로, 자의적인 것으로 본다. 즉, 어떤 표시가 갖는 의미는 기호 자체의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작용(usage)에 의한 것으로, 비언어적인 행위에 의해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정도를 지칭한다.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비언어적 행위들은 기원, 코딩, 그리고 작용에 근거하여 표상(emblems), 설명자(illustrators), 적응자(adaptor), 조정자(regulators), 감정표현(affect display)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첫째, 표상은 문화학습에 기원하며, 자의적이고 유상적인 코딩, 의도적 양식의 작용 행위를 한다. 둘째, 설명자는 정보적 혹은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적 기원이며, 의도적인 코딩과 표의적인 지시동작 행위를 하는 것이다. 셋째, 적응자의 행위 유형은 상호작용적 기원이며, 본능적인 코딩과 작용의 행위를 한다. 넷째, 조정자의 행위 유형은 문화학습적인 기원을 가지며, 본능적이고 유상적인 코딩과 눈을 맞추는 작용 행위를 하는 것이다. 다섯째, 감정표현은 정보적,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적 기원이며 본능적인 코딩과 얼굴의 감정표사로서 작용하는 행위이다.

3.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공간

근접학(proxemics)은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공간 사용에 초점을 둔다. 홀(Hall)⁹⁾은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소 공간, 즉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람간의 거리, 공간의 조직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도시설계를 어떻게 구조화 시키는가에 대해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근접학에서 언급되는 공간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고정 공간(fixed-feature space)은 이동할 수 없는 배열로 구조적인 구성을 갖는다. 둘째, 반고정공간은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의 배열로 구성된 방법이다. 셋째, 비형식적 공간은 개인의 움직임 과정에서 신체 주변의 개인적 범주으로써 대인

9) Hall, E. (1963), A system for Notation of Proxemic Behavior, *American Anthropologist* 65, p. 1003.

관계에서의 간격과 거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김홍규¹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8개의 범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첫째, 자세-성 요인(posture-sex factors)으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성과 기본적인 자세를 의미한다. 둘째, 사회차폐적-사회향진적 (sociofugal-sociopetal axis)요인으로 타인과의 어깨 각도의 상대적인 것으로 서로 대면하는 것, 혹은 등을 맞대는 것 등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접촉동작요인(Kinesthetics factors)은 접촉 행위와 능력에 의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의 친밀함에 대한 표현성을 의미한다. 넷째, 접촉 행위(touching behavior)는 우연성에 의한 접촉에서부터 표현적인 접촉, 또는 접촉이 엮는 상태까지도 포함하는 밀착행위에 관한 것이다. 다섯째, 시각적 약호(visual code)는 맞춤의 방법을 포함하는 범주, 직접적 접촉부터 무접촉까지를 포괄한다. 여섯째, 열량적 약호 (thermal code)는 다른 소통자로부터 인식한 열을 지칭한다. 일곱째, 후각적 약호(olfactory code)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인식한 후각적인 요소로써 인시되는 냄새의 종류나 정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여덟째, 목소리 크기(voice loudness)는 대인간의 위치와 거리,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소이다.

III. 무용 연구에서의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적용

1.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한 무용의 요소

자기표현의 형태로 진화한 예술은 예술가의 감정, 가치관 등을 몸짓, 표정, 음악, 그림 등으로 표출하여 관객과 소통하는 장르이다. 무용을 전달하는 도구, 즉 무용수의 감정이 내재되어 있는 몸의 움직임으로 관객과의 교감을 도모한다. 그러므로 무용수의 몸짓은 관객과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두 주체간의 온전한 소통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스파쇼트(Sparshott)¹¹⁾에 따르면 무용은 3개의 확정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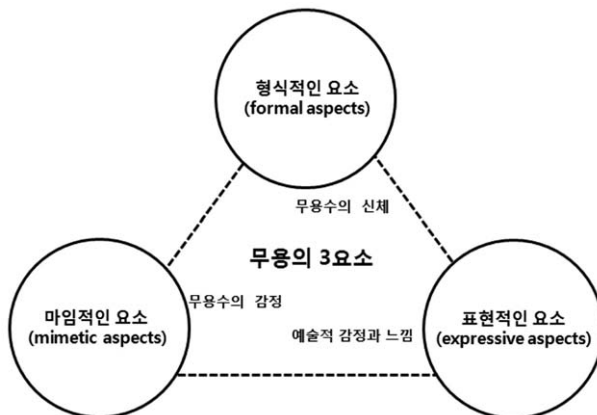
10) 김홍규 (2001), p. 116.

11) Sparshott, F (1995), *A Measured Pace* (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 84.

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즉 형식적인 요소(formal aspects), 마임적인 요소(mimetic aspects), 표현적인 요소(expressive aspects)로 구성된다.

무용수의 감정과 표정이 함축되어 표출되는 제스처어들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최경란의 연구¹²⁾에 따르면, 무용은 비언어적 도구인 신체 움직임과 심리활동과의 복합적인 형태로 표출되어 관객의 감성을 자극한다고 보고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구성하는 움직임은 무대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스처어로 간주한다. 이는 곧, 무용에서 신체 움직임은 하나의 언어로 인식하게 되고 언어로써 무용이 사회와 소통하는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이연수의 연구¹³⁾에서는 무용창작 작품이 부호화된 기호체계인 몸의 움직임과 감정 표현을 메시지로 구성한 것으로, 관객을 능동적 수용주체로서 인식하고, 작품에서의 언어는 무용수와 관객의 커뮤니케이션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근거한 무용의 요소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무용수들의 신체를 형식적인 요



<그림 1>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한 무용의 3요소

12) 최경란 (1990), 무용예술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춤 언어 개발에 대한 고찰 : 한국창작무용의 세작품 생산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6-77.

13) 이연수 (1989), 무용의 사회적 의미소통 : 작품의 생산과 수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8.

소로 볼 수 있으며, 몸짓과 표정을 통해 전달되는 무용수의 감정을 마임적인 요소로 보고, 무용의 예술적 감정과 느낌을 전달하는 것을 표현적 요소로 해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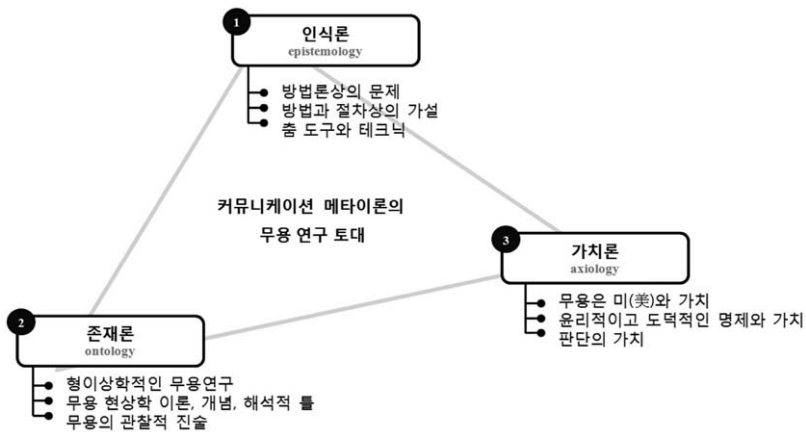
2. 무용연구에 적용되는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철학적 근거

그동안 메타이론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지배적인 이론으로 하나의 이론 구조나 개념,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을 초월하여 탐구 본질에 대한 사고를 넓혀나가는 전체적인 맥락을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메타이론의 관점은 커뮤니케이션이 기능할 수 있는 무용 연구에서의 이론적 범위, 포괄성과 총괄성에 준하는 일반성의 원리, 이론적 의문에 대한 연구방법의 적합성을 감안하여 비언어적인 성격에 초점을 둔 발견적 가치와 명확한 논리를 제안해 줄 수 있는 간결성 등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내기에 앞서 무용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철학적 토대가 되는 관점과 관련하여, 김홍규¹⁴⁾의 철학적 분류체계는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에 근거한다. 이는 첫째, 인식론(epistemology)은 지식의 문제로서 지식을 연구하는 철학이다. 이는 지적 호기심과 관련한 것으로 지식은 사고와 지각의 고유한 매커니즘을 구성하며, 지식은 인간의 순수한 힘으로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것이다. 둘째, 존재론(ontology)은 알고자 하는 현상의 존재와 본질을 다루는 철학적 범위와 영역이다.¹⁵⁾ 인식론과 존재론의 연구는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지식에 대한 관념은 본질에 관한 관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이 분야에서 인간존재의 본질을 다루며,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본질을 탐구한다. 셋째, 가치론(axiology)은 가치를 연구하는 지류로 학문적 가치와 이론 탐구와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가치 의식적 입장과 과학이란 가치의 영향력에 대하여

14) 김홍규(2001), pp. 56-57.

15) Alasdair, M.(1967), "Ontology." i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5(ed). P. Edwards(New York: Macmillan), pp. 542-543.



〈그림 2〉 무용 연구의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철학적 토대

초연할 수 있어야 하며 중재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 입장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무용연구와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철학적 근거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째, 인식론적 관점에서 무용은 방법론상의 문제, 방법과 절차상의 가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측 도구와 테크닉에 관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 둘째, 존재론적 관점에서 무용은 형이상학적인 무용의 문제들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는 메타이론에 근거해 볼 수 있다. 이론, 개념, 해석적 틀, 관찰적 진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치론의 관점에서 무용은 미(美)와 가치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명제와 가치, 그리고 판단이 무용연구의 가치 영향에서 기술될 수 있다고 본다.

3.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무용연구 토대 모형

비언어적(non-verbal) 커뮤니케이션에 관하여 스텔펜(Stephen)의 저서인 『인간 커뮤니케이션 이론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에서는 그 적용 범위가 포함하는 것의 불확실성 때문에 재정립의 한계가 있어 왔다¹⁶⁾고 역설한 바 있다.

16) Stephen, W. L.(1996),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Wadsworth Publishing Co.)

이와 관련하여 버군(Burgoon)은 비언어적 약호체계의 구조적 속성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바 있었다.¹⁷⁾ 비언어적 약호의 구조적 속성 개념은 다섯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아날로그(analogic) 경향으로, 연속성을 지닌다는 것, 둘째, 어떤 형상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유사성이 있다는 것, 셋째, 위협과 감정 표현 등의 신호이며, 넷째, 비언어적 상이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으며 다섯째, 자동 반응을 하며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Burgoon은 비언어적 약호체계는 약호에 사용된 활동 유형에 따라 다음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¹⁸⁾ 이는 동작학 또는 신체적 활동, 둘째 근접학 또는 공간의 사용, 셋째, 신체적 모습, 넷째, 접촉학(haptics) 또는 접촉의 사용 다섯째, 음성학(vocalics), 여섯째, 시간학(chronemics) 또는 시간의 사용 마지막으로 가공학(artifacts) 또는 대상의 사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무용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체언어에 중점을 둔 언어학의 모형인 동작학(kinesics)과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공간 사용의 상황과 의미를 다루는 근접학(proxemics)을 중심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부터 적용될 수 있는 무용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비언어적 코딩, 즉 비언어적 약호체계에 관한 요소와 이들의 구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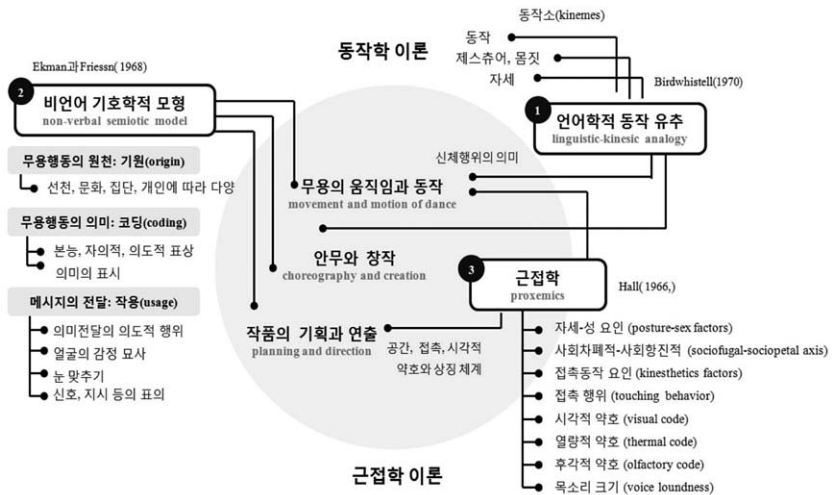
무용연구에서는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무용 연구의 상당한 부분에 근거할 수 있는 학문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이론들 중 동작학과 근접학의 개념원리와 요소로부터 무용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스키마(schema)의 타당성을 위하여 인지적 도식화를 실시하여 <그림 3>과 같은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무용연구 토대 모형을 제안하였다. 첫째, 버드위스텔의 동작학 이론은 무용의 동작, 제스처, 몸짓, 자세에 이르는 신체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언어학적 동작 유추를 토대로

17) 김홍규 (2001), p. 112.

18) Burgoon, J. K.(1985), *Nonverbal Signals*, In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ds Mark, L. K. and Gerald R. M, Beverly Hills, Calif: Sage, pp. 349-350.

〈표 1〉 무용연구에서의 비언어적 메타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적용 범주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	핵심범주	무용연구의 접근관점	무용연구의 대상 및 환경
동작학	언어학적 동작 유추 Birdwhistell(1970)	신체행위의 의미	무용의 움직임과 동작 안무 및 창작 작품의 기획과 연출
	비언어 기호학적 모형 Ekman & Friessn(1968)	무용행동의 기원 무용행동의 코딩 메시지의 전달	
근접학	커뮤니케이션 공간 Hall(1966)	공간, 접촉, 시각적 약호와 상징체계	



〈그림 3〉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무용연구 토대 모형

동작학 이론은 무용의 움직임과 동작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에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무용 동작의 연출과 표현 과정에서 의미와 정보는 원리에 근간하고 있다. 둘째, 에크만과 프리센의 동작학 이론은 무용행동을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행위 뿐 아니라 문화, 집단, 개인에 따라 변화하여 다양하게 기호화될 수 있는 기원 (origin), 무용행동의 의미를 표시하고 본능적, 혹은 자의적, 의도적 표상으로 제시 될 수 있는 코딩(coding)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비언어적 행위로써 작용(usage)은 의미전달의 의도적 행위, 얼굴의 감정 묘사, 눈의 시선, 신호, 지시 등의 표의로

정보, 메시지 전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작소의 작은 행태 뿐 아니라 안무와 창작 과정에서의 코딩과 작용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연관해 볼 수 있다. 셋째, 홀의 근접학은 무용의 공간, 접촉, 시각적 약호와 상징체계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는 자세의 요인과 자세가 주는 상징, 사회차폐적-사회향진의 상징, 접촉행위와 요인, 시각적 또는 후각적 약호, 목소리 등이 주는 상징과 의미 등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무용의 안무와 창작, 작품이 주는 의미와 상징에서 이러한 근접학의 근간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인류 초기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비언어적 수단에서 영역의 제한이 없는 무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몸짓, 음악, 그림 등을 통해 생산주체와 수용주체가 동일한 의미를 교감할 수 있는 예술로 진화하였다. 무대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나, 음악, 무용 등 모든 형태의 예술을 대중에게 제 공하는 장르를 공연예술(Performing Art)라 하며 ‘관찰자’ 적인 소극적 역할로 여겨졌던 관객이 현대에 들어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형성된 다양한 관객층을 위한 공연들이 제작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언버벌(non-verbal) 퍼포먼스가 각광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¹⁹⁾ 마틴(Martin)²⁰⁾은 무용예술이 인간의 이성 혹은 지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상 및 감정을 신체 움직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코페랜드(Copeland)²¹⁾는 일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틀

19) 유미애 (2011), 한국 언버벌 퍼포먼스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 〈난타〉 공연의 문화기호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19.

20) Martin, J.(1965), *The Modern Dance*(New York : A.S. Bernes & Company Ltd), p. 10.

21) Copeland, R., & Cohen, M.(1983), *What is Danc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5.

이 짜여진 리드미컬한 움직임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무용의 기본 개념인 신체를 움직임으로써 자신의 감정, 가치관 등을 표현하는 님버벌 퍼포먼스이면서 동시에,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콜링우드(Collingwood)²²⁾는 무용이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언어이며 언어의 도구로 신체를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무용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진화된 장르로 역설하였다. 이와 같이 님버벌 퍼포먼스,²³⁾ 즉 비언어를 모티브로 한 공연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면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해진 대사 없이 생산주체인 배우와 수용주체인 관객이 비언어적으로 교감하게 된다.

그동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 외에 모든 제스처, 감정, 표정 등을 포함하는 소통도구로 소통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공연예술, 교육, 선교 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공연예술에서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들로, 방재현²⁴⁾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시각메시지 표현연구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적용방향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유미애²⁵⁾의 한국 님버벌 퍼포먼스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한국 공연예술의 커뮤니케이션과 구조 개념을 파악하였다. 둘째, 교육적 효과성과 관련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들로 교육 분야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방안 연구,²⁶⁾ 발표 활동에 관한 비언어적 표현과 교육 방법,²⁷⁾ 영어 교육에서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연구²⁸⁾ 등 교육 현장에서의 지도 및 발표, 의사소통에 관한 소재로 연구되

22) Collingwood, R. G.(1958), *The Principles of Ar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235.

23) 님버벌 퍼포먼스는 언어가 아닌 제스처, 몸짓, 소리, 리듬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연예술을 의미한다.

24) 방재현 (2011), p. 1.

25) 유미애 (2011), p. 2.

26) 오경균 (2010), 프레젠테이션 능력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방안 연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27) 권대호 (2011), 발표 활동의 비언어적 표현 특징과 교육 방법,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

28) 추진희 (1998), 영어교육에서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연구 : 신체 언어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어 왔다. 셋째, 선교에서의 무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다룬 연구들로, 무용의 선교 분야에서 신수연²⁹⁾의 기독교 무용의 교회 내 활용 가능성 연구에서 공덕순³⁰⁾은 인간과 그리스도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어 선교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선교무용은 신체를 통하여 생명, 정서, 내면적 실재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며, 언어적, 상징적, 치유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선교 무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다양한 변수는 무용의 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무용에서의 에포트 분석을 연관하여 볼 수 있는데, 이는 무용에 포함된 복합적이고 상징적인 매체의 성격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단순한 구조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려우며 시간적 공간, 공간적 시간을 다루어야 하는 복합적 매체 성격은 근본적으로 인간 신체의 움직임이라는 본질적 매체와의 관계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나경아³¹⁾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적 연구들이 주는 학문적 영감은 무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과 문제들의 토대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무용연구에서 적용될 수 있는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적용 타당성을 제안하기 위하여 스키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무용연구에 있어서의 특수성과 유사한 맥락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무용연구의 스키마를 제공하기 위하여 핵심 자료의 분류와 범주화를 통해 인지적인 도식화로 결과를 도출하는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을 제공하였다.

29) 신수연(2009), 기독교 무용의 교회 내 활용 가능성 연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NVC)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30) 공덕순(2011), 무용의 선교 커뮤니케이션 활용 방안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 3.

31) 나경아(2005), 에포트 분석을 통한 무용동작의 심리수반 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

첫째, 동작학 이론을 토대로 언어학적인 동작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관점이다. 동작학은 신체언어(body language)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동작(kines)은 문화집단에 따라 정의가 상이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단시간 내에 발생하여 인지할 수 있는 신체움직임을 지칭한다. 이는 동작 또는 자세들의 범위를 하나로 보고 있다. 이 이론을 토대로 무용의 동작, 제스처, 몸짓, 자세에 이르는 신체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언어학적 동작 유추를 토대로 동작학 이론은 무용의 움직임과 동작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에 근거가 될 수 있다. 무용의 움직임과 동작은 내면적인 감정, 심상 등을 표현하는 행위와 그 방식을 생산해 내는 독창적인 생산 활동으로 작가적인 관점에서 보다 그 의미를 효과적인 정보 혹은 메시지의 전달 방법을 탐색해내어야 하기 때문에 동작학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보람³²⁾의 마크 모리스(Mark Morris)의 「디도와 아에네아스 *Dido and Aeneas*」와 로이드 뉴슨(Lloyd Newson)의 「스트레인지 피쉬 *Strange Fish*」를 중심으로 한 현대무용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양상 연구를 짚어볼 수 있다. 모리스와 뉴슨의 안무가 하이브리드 양상의 확산이라는 시대의 특성에 강한 영향력을 받았다고 해석하면서 무용 움직임을 비롯한 시간적, 성적, 장르적 특성으로 의미 짓고 있다. 이와 같은 동작들의 의미 분석은 동작학이 토대가 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동작학 이론을 토대로 비언어 기호학적 모형에 적용해 보는 관점이다. 이는 개인, 느낌, 분위기, 개성, 태도를 증가시키며 주어진 대인간의 상호작용, 관계의 본질, 커뮤니케이션의 상태 또는 특성, 어떤 인상의 형성과정, 대인간의 스타일 또는 기술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무용행동을 선척적이고 본능적인 행위 뿐 아니라 문화, 집단, 개인에 따라 변화하여 다양하게 기호화될 수 있는 기원(origin), 무용행동의 의미를 표시하고 본능적, 혹은 자의적, 의도적 표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코딩(coding)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무용의 안무와 창작의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무용의 주제 선택에서부터 신체의 자세와

32) 전보람(2011), 현대무용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양상 연구 :마크 모리스(Mark Morris)의 「디도와 아에네아스 *Dido and Aeneas*」와 로이드 뉴슨(Lloyd Newson)의 「스트레인지 피쉬 *Strange Fish*」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동작, 음악, 미술, 조명, 의상 등 여러 가지 표현 요소들이 전체로 결합되어지는 기획과 연출(direction)이 전반적인 기술 수련과 이야기(storytelling)를 펼치는 연출자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기호, 상징이 심상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질 것인가는 코딩이 되고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루어진 무용 작품의 분석에 대한 연구로 무용에서의 음악의 상징성과 기능을 분석한 연구인 이선민³³⁾의 마크 모리스(Mark Morris)의 『Falling Down Stairs』와 트리샤 브라운(Trisha Brown)의 『M·O』를 중심으로 한 무용작품에 나타난 음악적 특성 연구를 살펴보면, 음악의 적절한 활용이 무용작품의 창조성과 표현성을 높이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용 음악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의 근거에는 이크먼(Ekman)의 동작학에서의 표현요소의 코딩과 작용이 주는 음악적 심상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해석된다.

셋째, 근접학의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무용에서의 공간 사용을 중점을 두는 관점이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소 공간, 즉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람간의 거리, 그의 집과 사무실 사이의 공간의 조직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삶의 설계를 어떻게 구조화 시키는가에 대한 것에 이르는 공간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는 무용의 공간, 접촉, 시각적 약호와 상징체계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는 자세의 요인과 자세가 주는 상징, 사회차폐적-사회향진의 상징, 접촉행위와 요인, 시각적 또는 후각적 약호, 목소리 등이 주는 상징과 의미 등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무용의 안무와 창작, 작품이 주는 의미와 상징에서 이러한 근접학의 근간은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은 이론의 적용은 나정선³⁴⁾의 에포트 셰이프 분석을 중심으로 한 무용창작 작품 『비밀』에 나타난 표현에 관한 연구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라반의 에포트 셰이프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작품의 움직임의 특질을 파악하여 심리 표현과의 연관성을 살펴 본 작품에 관한 것으로 무용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관객과 안무가, 무용수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안무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33) 이선민(2010), 무용작품에 나타난 음악적 특성 연구: Mark Morris의 『Falling Down Stairs』와 Trisha Brown의 『M·O』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1.

34) 나정선(2011), 무용창작작품 『비밀』에 나타난 심리 표현에 관한 연구: effort-shape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3.

있다.

이와 같이 무용수의 감정과 표정이 함축되어 표출되는 제스처들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들이 된다. 무용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행위가 갖는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고, 온전하게 전달하며, 이해하는 과정에서 무용연구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메타적 접근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무용연구는 몸짓, 손짓, 표정 등의 비언어의 표현을 기초로, 그 이상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예술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메타 이론의 탐구 과정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술학문으로써 무용의 소통과 표현, 의미 분석과 현상학적 해석학의 방법적 절차에 앞서 동작학과 근접학에 접목시킬 수 있는 체계로 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토대를 이해하고 무용의 개념에 부합하는 무용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과정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Stephen, W. L.(1996).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이론』. 김흥규 역. 나남 : 커뮤니케이션이론, 2001.
- Birdwhistell, R.(1970). *Kinesics and Contex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urgoon, J. K.(1985). *Nonverbal Signals*. In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ds.) Mark, L. K. and Gerald R. M, Beverly Hills, Calif; Sage.
- Collingwood, R. G.(1958). *The Principles of A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peland, R., & Cohen, M.(1983). *What is D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in, J.(1965). *The Modern Dance*. New York : A.S. Bernes & Company Ltd, p. 10.
- Randal, H.(1974). *Beyond Words: An Introduction to Non-verbal Communication*.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 Hall.

- Sparshott, F.(1995). *A Measured Pac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Stephen, W. L.(1996).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Wadsworth Publishing Co.
- 공덕순(2011). 무용의 선교 커뮤니케이션 활용 방안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권대호(2011). 발표 활동의 비언어적 표현 특징과 교육 방법.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나경아(2005). 에포트 분석을 통한 무용동작의 심리수반 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나정선(2011). 무용창작작품 『비밀』에 나타난 심리 표현에 관한 연구: effort-shape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신수연(2009). 기독교 무용의 교회 내 활용 가능성 연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NVC)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오경균(2010). 프레젠테이션 능력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방안 연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유미애(2011). 한국 년버벌 퍼포먼스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난타> 공연의 문화기호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선민(2010). 무용작품에 나타난 음악적 특성 연구: Mark Morris의 「Falling Down Stairs」와 Trisha Brown의 「M·O」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연수(1989). 무용의 사회적 의미소통 : 작품의 생산과 수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전보람(2011). 현대무용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양상 연구 :마크 모리스(Mark Morris)의 「디도와 아에네아스 *Dido and Aeneas*」와 로이드 뉴슨(Lloyd Newson)의 「스트레인지 피쉬 *Strange Fish*」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방재현(201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시각메시지 표현연구: 메시지의 신체적 표현에 의한 포스터 제작.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추진희(1998). 영어교육에서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연구 : 신체 언어를 중심으로. 부

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최경란(1990). 무용예술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춤 언어 개발에 대한 고찰 : 한국 창작무용의 세작품 생산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홍순구(2006).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표정연출 유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6: 165-174.

Alasdair, M.(1967). Ontology: i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5, ed. P. Edwards. New York : Macmillan.

Hall, E.(1963). A system for Notation of Proxemic Behavior, *American Anthropologist*, 65 : 1003-1026.

Ekman, P., & Friesen, W. (1972). Hand Mov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22.

논문투고일	2012년	4월	15일
심 사 일		4월	20일
심사완료일		4월	27일

Abstract

Perspective of Nonverbal Meta-Communication Theory in Dance Study

Kim, Ji Young · Park, Hyun Jung

Adjunct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of Korea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A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nonverbal communication elements of dance in order to present the possibility and validity of applying them from the standpoint of nonverbal meta communication centering on kinetics and proxemics. The nonverbal meta communication theory that can be applied in dance study includes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First, the kinetics by Birdwhistell has the meaning of body language. It can be applied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bodily action of dance movement, gesture, motion and posture. Second, the kinesiology by Ekman & Friessn(1968) increases individual, feel, atmosphere, individuality and attitude, and emphasizes the given interpersonal interaction, essence of relationship, condition or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etc. Accordingly, it presents origin that can be diversely encoded, coding that can be presented as instinctive, arbitrary or intentional representation, and usage that convey message. Third, the proxemics by Hall which is a theory on communication mainly deals with usage of space. With regards to the dance space, contact, visual code and symbol system, it is a theory that presents the symbol and meaning of the factor and symbol of posture, symbol of social shielding & acceleration, contact action and factor, visual or olfactory code, voice, etc. In addition, the philosophical basis that affect dance study and theory can be seen in meta theory. First, dance from the epistemological perspective can deal with the issue of methodology, method and procedure of hypothesis, and issues on dance tool and technique. Second, dance from the ontological perspective can be based on the meta theory of approaching the issues of metaphysical dance from the standpoint of phenomenology because it allows theory, concept, interpretive frame and observatory explanation. Third, dance from axiological perspective deals with the issue of the beauty and value of dance. Accordingly, it can be seen that ethical and

moral proposition and value and judgement can be described in the value influence of dance study.

keywords: nonverbal meta-communication(비언어적 메타 커뮤니케이션), meta theory(메타이론), kinetics(동작학), proxemics(근접학), dance study(무용 연구)